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5월 16일(목) 행사시작(10: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5. 15. / (총 12매)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 윤 신	전 화	044-202-3560
담 당 자	박 재 홍		044-202-3561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

- 2019년도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아세치 키미·유미현 씨 등 11명 수상 -
- 가정양육 부모의 자기개발, 양육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엄마의 안심시간·아이의 성장시간’을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어, 총 151편 중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5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18년 한해 동안, 전국 443개 시간제보육반에서 1만 8,437명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443개 반
- 이용시간 : 월~금, 9~18시
-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 최우수상 수상자인 일본 출신 아세치 키미(여, 32세)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미술 전공을 살려 삽화(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였다.
 - 아세치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며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와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큼 아이와 있을 때에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고 감회를 밝혔다.
-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미현(여, 35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시간제보육을 통하여 육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유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나는 좀 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제게 마법과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주(여, 42세) 씨는 교통사고로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제보육의 도움을 받아 친정엄마의 간병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신 씨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보험 같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내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사실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영희(여, 33세) 씨는 “시간제보육이 없었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와 아이로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운동 등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예약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활동가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부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 정 씨는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그밖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이어가게 된 사례, 재취업을 하게 된 사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 둘째 임신·출산기간 동안 시간제보육을 통해 첫째의 육아도움을 받은 사례, 요리전문가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사례,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사연들이 공모전을 빛냈다.
- 보건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들의 수기를, 우수 제공기관의 보육 프로그램·놀이활동·담임교사의 소감과 함께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면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피로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부모의 자기 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 붙임 >
1. 공모전 수상자 명단
 2. 공모전 수상자 이용수기
 3.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붙임1

공모전 수상자 명단

연번	구분	수상자	제목
1	최우수	아세치 키미	“고마워요, 시간제보육”
2	최우수	유 미 현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시발점, 시간제보육”
3	우수	신 현 주	“나의 엄마 아프실 때, 나의 아들 돌보아 준 뽀뽀선생님 감사해요”
4	우수	정 영 희	“엄마도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5	우수	허 새 암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엄마들의 지원군, 시간제보육!”
6	우수	최 노 을	“시간제보육 이용후기 : 달콤한 시간을 부탁해 ~”
7	장려	길 희 경	“나와 아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 시설”
8	장려	김 달 님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시간제보육”
9	장려	유 혜 선	“힘들었던 임신기간 동안 희망 같았던 시간제보육 이용 후기”
10	장려	이 문 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요즘은 시간제보육이 필요하다”
11	장려	차 경 임	“시간제보육 이용기 : 독박육아 엄마에게 시간을, 아이에게 행복을”

붙임2

공모전 수상자 이용수기

#1. 고마워요, 시간제보육

최우수상 아세치 키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을 둔 일본인입니다. 2016년 12월에 첫 아이를 낳고 다문화가정으로서 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시택은 전라도이고 친정은 일본이라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 하였고, 남편도 일이 바쁘고 주말에 회사를 나가는 일이 잦아서, 거의 저랑 아기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거의 둘이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놀거나 했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단 둘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았고 한국말도 익혀야 된다는 생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을 받는 교실 게시판을 보고 시간제보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간제보육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별로 이용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저는 미술을 전공으로 했으나 직업으로 이어지지 못 했습니다. 대신에 주로 번역을 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자잘한 시간에 번역을 하였으나, 언젠가 일러스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일러스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었으나, 18개월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낯가림이 심해 저랑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또한 다문화센터의 이중언어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와 일본어로만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있는 것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하루종일 맡겨야 할 정도로 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오전에만 맡겨볼까 하는 생각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입소대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봤던 시간제보육이 생각났습니다. 다행히도 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본 후, 아이가 편찮을 것 같으면 일을 맡기로 결정하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새로운 건물로 시설도 좋아보였고 들어가보니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시간씩 일주일을 맡겨보았는데, 아이도 처음에 떨어질 때만 잠깐 울다가 잘 적응해갔습니다. 또 선생님 1명이 아이 3명을 보신다고 해서 1명당 봐주실 시간이 넉넉할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적응하여 울지 않게 되자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낯가림은 여전했지만 선생님에는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 몇 개월 지나자 스스로 가고 싶어할 날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 말고도 자주 오는 아이가 2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좋아했습니다. 한국어는 못 했지만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는 친구들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는 것이 좋은 자극을 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육아나 놀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자잘한 일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 반가웠습니다.



아이는 3살까지 집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어린이집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었는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알게 되어 어린이집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시간제 보육실에서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저 자신이 아이랑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제보육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그만큼 아이랑 있을 때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한지 약 반년 정도 지나자 제가 맡은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는 만 2세가 되었고, 새로운 어린이집 정규반에 입소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응했는데 아마도 시간제보육을 통해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께 시간제보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만나보면, 어린이집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모국어로 얘기하다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어린이집에서 적응이 될지, 다문화 아동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지 등 두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무조건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시간제보육을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지 권하고 싶습니다. 1반에서 받는 인원수가 3명으로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 수 있고, 조금씩 한국어를 접하기에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 한번 정규반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출석일수 문제로 외국의 친정까지 길게 다녀오기가 어렵지만, 시간제보육은 그때그때 예약하는 방식이라 자유롭게 친정에 다녀오거나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설령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이를 길러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고마운 제도가 없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알기 전에 아이를 달래가면서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는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누구라도 1시간만 아이를 맡아줬으면 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그런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 아이를 맡아주신 시간제보육 선생님께 정말 고맙고, 이런 제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제보육을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이 더 잘 알려지고 시간제 보육실도 늘어나서, 보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시발점 최우수상 유미현

1. 육아 그 전쟁 같은 긴긴 하루의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이다. 정후를 낳기 전에는 어느 경력단절 여성들과 다름없이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던 회사원이었다. 사실 육아의 무게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후를 임신한 후에는 엄마로서의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 세상 모든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출산을 하고, 18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며, 아이의 발달에 관한 육아서를 보면서 엄마공부를 했다. 엄마로서 준비를 잘 해왔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후 99일 첫 뒤집기 부터 걷게 되기까지 정후는 신체발달이 빠른 편이었다. 정후는 아기 때부터 바닥에 머리 닿는 것을 싫어해서 기저귀를 갈 때도 늘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배밀이 한 번 없이 빠르게 기어 다니기 시작하더니, 생후 9개월 즈음인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걷기 시작했다. 정후는 말도 빠른 편이어서 16개월경에는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거의 할 줄 알았다. 이제 다 키웠다 싶었다.

그러나 낮잠도 거의 없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서 그 체력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또 하루 3번 이유식이며 간식을 챙기고, 넘치는 체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함께 놀다보면 밥 굶는 일 잦은 부지기수였다. 치아가 빨리 나는 편이라 1년에 4개씩 치아가 올라오니, 아이는 자다가 아파서 일어나고, 나도 쪽잠 자는 일도 많았다. 체력은 고갈되고, 밥을 굶으며, 잠까지 부족했다. 악순환이었다.

2. 엄마도 사람이다. 독박육아를 말한다.

정후는 아침잠이 없어서 7시면 눈을 번쩍 뜨고 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이 놀자고 했다. 다른 아기들처럼 잠을 자기 싫어해서 달래고 달래서 10시 이전에 재우려고 노력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어떻게 해도 안 되어 너무 피곤 할 때에는 안자면 도깨비가 나온다고 했다. 엄마가 화가 난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물론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루 15시간 이상 육아를 했다.

말 그대로 독박육아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면 아이목욕과 집안일을 도와주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알게 되었지만, 인력 문제로 신청 후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당장 잠깐이라도 아이를 돌봐줄 손길이 간절했다.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웠다. 따뜻한 커피 한잔이 그리웠다. 정말 딱 1시간만 바닥에 등을 대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감기에 걸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그러나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는 엄마는 쉬 수도, 아플 수도 없었다.

3. 1시간의 힐링, 시간제 보육!

정후는 돌잔치를 끝난 후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했다. 13개월에 첫 어린이집, 돌이켜보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가정양육을 하는 동안 정후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몇 달새 감기에 걸리고 폐렴으로 나빠지는 과정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 정후는 아직 외부 시설에 지내기에는 면역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정후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36개월까지는 집에서 키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름 열혈엄마이다. 하루 종일 집에서 답답할 아이를 위해 하루에 1번은 콧바람을 씻어주자고 생각했다. 운전이 못하는 뚜벅이족인 나는 아기띠를 메고 정후와 한 몸이 되어 문화센터며 어디든지 정후가 즐길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우연히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게 되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키즈카페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너울가지놀이실,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시간제보육실이 있었다.

2017년 7월, 그렇게 나는 정후가 생후 17개월이 되었던 때 시간제보육을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시간제보육의 이용방법, 절차, 규칙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또 정후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낼지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시간제보육 선생님들은 보육전문가로 한 단계 한 단계 아이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또 나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해주셨다. 정후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보육실에 적응하였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다.

휴식은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든다. 시간제보육은 편안하게 밥을 먹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1시간의 특별한 힐링타임을 가져다주었다. 정말이지 마법과도 같은 1시간이었다. 불과 단 1시간이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다. 우습지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나는 좀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엄마는 누구보다 정후에게 필요한 것이었을 테다.

4. 아이의 마음을 읽는 육아전문가

2018년 4월, 정후가 생후 26개월이 되던 때 이사를 하였고, 구립길산어린이집 시간제보육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첫날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난다.

“정후가 이곳은 처음이다 보니 많이 낯설거예요. 오늘은 한 시간을 지내다 가되 어머니가 같이 계셨으면 해요. 천천히 적응시간을 늘려가며 아이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응을 도와야 거부감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아이에 대한 배려와 보육전문가의 전문성이 느껴졌다. 정후가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걱정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엄마, 정후는 키 크는 나라로 갈 거예요.”

어느 날 정후가 해주었던 말이다. 그리고는 이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는 잠을 청했다. 원래 정후는 에너지가 넘쳐서 낮잠을 못 자던 아이였다. 그런데 시간제보육을 하면서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키 크는 나라’와 같이 아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육전문가의 노하우에 있었다.

“오늘은 정후가 컨디션이 매우 좋았어요. 붕붕카도 신나게 잘타고 블록놀이도 하고 여름이다 보니 직접 스티커를 붙여서 부채도 만들어 보았어요. 엄마한테 선물 준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만큼 다 잘 먹었고요. 배변은 아침에 응가 한번 하고, 쉬는 변기에서 시도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소변을 본 후 깨끗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스스로 닦아보았어요. 친구가 포도를 가져와서 나눠주니 고맙다고 인사를 잘했어요.”

“정후가 소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게놀이를 하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어 제가 준비해보았어요. 집게로 폼퐁이 옮기기 놀이를 즐겨워 하더라고요.”

시간제보육을 계속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선생님의 애정과 관심이었다. 선생님들은 정후의 관심사, 컨디션, 발달상황 등을 세심히 관찰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 없이 나올 수 없는 피드백을 가득 주셨다.

“오늘 정후가 정말 기특했어요. 동생이 우니까 ‘울지 마’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 때는 자기가 물티슈를 친절히 가져다주더라고요. 보육실에서는 가장 큰 형이라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 정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정후는 시간제보육을 통해 ‘나 말고 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이 자신에게 주는 관심과 애정처럼 자신도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아이가 되어 갔다.

5. 혼자가 아니에요. 육아전문가들과 부담을 나누세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한지 1년, 나는 어느새 모든 이들에게 시간제보육을 알리고 싶은, 자칭 ‘시간제보육 홍보대사’가 되어버렸다. 특히 오늘도 육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뭐든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엄마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적응을 잘합니다. 뭐든지 잘하는 슈퍼우먼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모성애’란 말이 얼마나 엄마에게 가혹한 말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전문가 선생님이 계신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이제 육아전문가들과 부담을 나누세요.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라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명언이 떠오른다. 육아는 누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온 마을이 서로 도와서 함께 아이를 키워가듯이, 시간제보육은 부모, 선생님, 시설, 정부가 힘을 합치는 공동육아의 시발점과 같은 제도가 아닐까.

2019년 3월, 정후는 구립길산어린이집에 입소하였다. 문득 어린이집 현관을 보니, 얼마 전까지 정후를 돌보아 주었던 시간제보육 선생님의 사진이 보인다. 그 때 누군가 그 사진을 보며 누구냐고 물으면, 정후는 웬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았다. 또 한명의 ‘엄마’라고. 끝.

붙임3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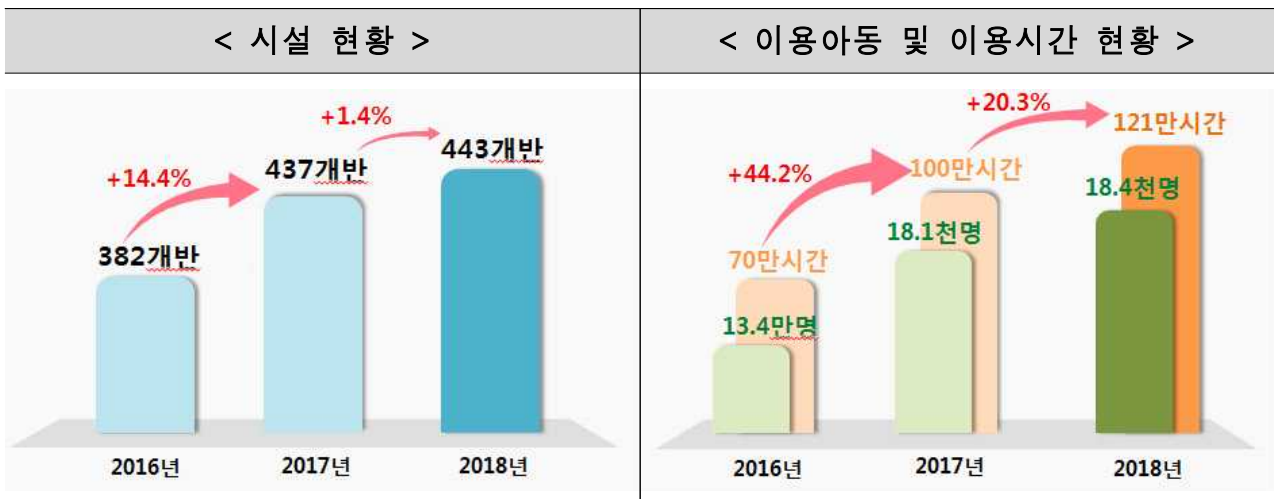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개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필요한 만큼 시설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 정부지원 · 1,000원 본인부담
- (반 편성) 3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 및 3명 이내 영아로 편성

□ 이용방법

-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포털) 및 제공기관·관리기관에서 등록
-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 모바일앱 · 전화신청으로 사전예약 후 이용
- (이용시간) 주중 9:00~18:00, 1시간 단위(최대 월 80시간)

□ 시간제보육 현황



* '13~'14년 시범사업을 거쳐 '15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